

탄신422주년기념

의암 주논개제전

(제29회 장수군민의날)



- 일시 : 1996. 10. 13 ~ 14
- 장소 : 의암사. 군내일원
- 주최 : 의암주논개제전위원회. 장수군
- 주관 : 장수문화원
- 후원 : KBS, 전북일보사, 전북문화예술진흥회, 팔공청년회, (주)동남레미콘



의암 주논개 약사

- 1574년 9월 3일(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출생.
- 부친은 주달문이고 모친은 밀양박씨로 학덕이 높은 집안임.
- 13세에 부친 별세, 편모슬하에서 자람.
- 숙부 주달무가 김풍헌의 민며느리로 팔려고 하자 모녀는 모친의 친정인 경상남도 안의현으로 피신.
- 김풍헌의 고소로 장수현 포리에 피체(被逮) 취조 결과 무죄방면, 무의무탁한 논개님을 최경희 현감이 부인 김씨의 시중을 들게함.
- 김씨 부인이 사망하자 1591년(선조 24년) 최현감의 후실로 들어감.
- 1592년(선조 25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
- 최현감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제주받자 논개님 진주성으로 옮김.
-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최경희 장군 남강에 투신 순국.
- 동년 7월 7일 축석루에서 왜군 승전연에 기생으로 가장 연회에 참석하여,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유인 남강에 투신 순절.
- 그후 나라에서 의암(義巖)이라는 시호(諡號)를 하사.

郡政指標

살기 좋고 活氣찬 새 長水 建設

郡民憲章

우리 長水郡民은 流久히 이어받은 三節의 高邁한 精神을 되살려 이 고장의 美風良俗을 振作시키고 子孫萬代까지 愛鄉心을 이 땅위에 永遠토록 保存한다.

1. 우리 長水郡民은 相互協同하여 굳건한 民主文化를 꽃피운다.
2. 우리 長水郡民은 勤勉·誠實하여 豊富한 資源을 開發하여 貧困을 驅逐한다.
3. 우리 長水郡民은 和睦團結하여 明朗한 秩序 生活을 영위한다.
4. 우리 長水郡民은 自助·自立하고 鄉土의 傳統을 길이 빛낸다.
5. 우리 長水郡民은 健全한 心身을 鍛鍊하여 幸福한 來日을 期約한다.

장수의 노래

이 기 반 시
이 준 복 곡

보통속도로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It consists of a piano accompaniment and a vocal line. The piano part uses a variety of chords including F, B-flat, C, G, A, d, C5, C, F, C, C6, F, D6, D, and g. The vocal line includes lyrics in Korean. The score is divided into four systems, each with a vocal staff and a piano staff. The first system is an instrumental introduction. The second system contains the first line of lyrics. The third system contains the second line of lyrics. The fourth system contains the third line of lyrics. The piano accompaniment provides harmonic support for the vocal line, with some chords marked with accents (>) and slurs (<).

mf F B^b C F

mf F B^b C F

g A d C⁶ C F

C C⁶ F D⁶ D g

장 분 안 수 령 굽 막 이 굽 이 에 힘 인 찬 맥 박 이 야
콜 복 마 다 줄 기 차 게 흘 러 념 치 니
정 답 게 아 름 다 운 우 리 의 터 전
어 끼 고 사 랑 하 며 하 나 로 뭉 처

C A⁶ d C F *mf*

행 복 의 씨 앓 뿌려 서 로 가 꾸 세 장 하
이 땅 의 낙 원 으 로 번 영 이 루 세

F F B^b b F

고 - 거룩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림

C *mf* F

게 - 빛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주논개님의 유적



▲ 장수생장향수명비



▲ 의암사 영정각



▲ 주논개 생가(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 의암사 기념관



▲ 생가지 사적불망비

주논개님이 태어나서 남강에서 순절하기까지



▲ 論介 生長 過程

선조 (宣祖) 21년(1588) 8월 이 지방사람 김풍헌(金風憲)이 논개(論介)의 인품에 탐을 내어 논개의 숙부인 주달무(朱達武)를 돈으로 매수하여 백치인 아들과 일방적으로 혼인을 시키려 했다. 그러나 논개 모녀가 완강히 반대하고 한편 위 주달무는 도망하자 김풍헌은 논개 모녀를 상대로 장수현감에게 소장(訴狀)을 올렸으며 그 결과 박씨 부인은 억울하게도 5년간 관가(官家)에 얽매이게 되었다. 이에 논개가 어머니를 대신하겠다고 간청하자 현감 최경회(崔慶會)는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모녀를 방면하였다.

논개는 선조(宣祖) 7년(1574) 9월 3일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훈장 주달문(朱達文)과 밀양박씨(密陽朴氏)사이에 태어났다. 이때가 마침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여서 모두들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낳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논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술(戌)은 개(犬)을 뜻하기 때문에 이름자에 “개”를 넣은 것이다. 논개(論介)는 천품(天稟)이 영리하고 자태가 아름다웠으며, 아버지가 훈장으로 계시는 마을 서당(書堂)에서 나이 10여세가 되기까지 한문을 배웠다.



▲ 誣告判決 받는 論介 母女



▲ 晉州城 싸움

선조 (宣祖) 26년(1593) 6월 29일 불행하게도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고 평생을 의지하려던 최경회(崔慶會) 부군(夫君)마저 전사(戰死)하자 논개는 슬픔으로 날을 새웠다. 그러자 승리에 도취한 왜병들이 7월 7석을 기해 축석루(矗石樓)에서 승전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논개는 잔치마당에 나갔다.

한참 흥이 돋구어질 무렵 그는 왜장 게다니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危岩으로 유인하여 그의 허리를 껴안고 함께 절벽아래 남강(南江)으로 몸을 던졌다.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나라를 지킨 거울이 된 것이다.

선조 (宣祖) 25년(1592) 왜적 3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장수현감 최경회(崔慶會)는 다음해 4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 兵馬節度使)로 임명되어 진주(晉州)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논개도 최현감에게 간청하여 함께 따라 갔다. 당시 전세(戰勢)가 불리하여 후퇴하던 왜군은 퇴로를 막고 있는 진주성을 공격키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성내(城內)의 모든 관군과 의병 및 민간인이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반격하였다. 아녀자들도 모두 나서서 치마폭으로 돌맹이를 나르고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 오르는 왜병에게 퍼부으면서 최후까지 싸웠다.



▲ 晉州 南江 殉死

탄신 422주 의암 주논개제전 행사 안내

제 29 회 군민의 날

체육 민속 행사

행사명	일정			장소	비고
	월일	시간			
마라톤, 릴레이, 배구, 씨름, 협동줄넘기, 고리걸기, 공차넣기, 투호경기	10. 13(일)	10:00 ~ 17:00	1일	장수중학교	

전야제

행사명	일정			장소	비고
	월일	시간			
군민의 밤 축등행렬 청소년가요제 가곡의 밤 풍물야시장	10. 13(일)	17:00 ~ 18:20	80	군민회관	
		18:20 ~ 19:00	40		
		19:00 ~ 21:00	120	특설무대	
		10. 13 ~ 10. 14	2일	의암사	

본 행사 및 문화행사

행사명	일정			장소	비고
	월일	시간			
제례봉행 참배 기념식 황희동상제막식 농악시연 경노잔치 전국판소리경연 군민위안공연 논개선발 카퍼레이드 의암시화전 궁도대회 한시백일장 의암백일장	10. 14(월)	09:00 ~ 09:30	30	영정각	
		09:30 ~ 17:00	1일	영정각	
		10:00 ~ 11:00	60	특설무대	
		11:10 ~ 11:50	40	소공원내	
		11:00 ~ 11:30	30	의암사광장	
		11:30 ~ 13:30	120	남산공원	
		11:30 ~ 14:00	150	특설무대	
		14:00 ~ 15:30	90	특설무대	
		15:30 ~ 17:00	90	특설무대	
		17:00 ~ 17:30	30	시내	
		09:00 ~ 17:00	1일	기념관앞	
09:00 ~ 18:00	1일	벽계장			
10:00 ~ 14:30	270	향교			
10. 9(수)	10:00 ~ 15:00	300	생가	지	

식 사 (式辭)



의암주논개제전위원장
장 수 문 화 원 장
김 진 영

오늘은 忠孝烈의 化神 義巖 朱論介烈士의 탄신 422주가 되는 날이요 (음 9월 3일) 救國의 丹心으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순절하신지 403주가 되는 해이며 (음 7월 7일) 제29회 군민의날입니다. 물과 공기 그리고 흙이 淸淨하고 비옥하여 하늘에서 선택받은 땅 장수이기에 義巖과 같은 萬古忠烈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하여 군민이 하나되어 祭禮奉行과 생가와 사당간 논개얼 이어받기 제주, 출향인 재향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故鄉의 밤을 비롯 20여 종목의 민속 문화 체육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원근간에 바쁜 일을 뒤로 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군민과 내외귀빈, 출향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文民化, 地方化가 성숙해가는 이때 제전행사를 민 주도로 실시한지도 올해로 3회째 됩니다.

그간 오랜 세월을 군 재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의 불비로 격년제 행사라는 안타까움을 불식하지 못했으나 금년의 제전은 군민의 절대적인 여망에 힘입어 조출하면서 알차고 뜻있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논개선발을 세태의 흐름에 따라 흥행하는 美人大會와는 격이 다른 조국애와 義烈精神을 이어받아 자존적 군민상을 정립하는 보람의 행사로 승화토록 합시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면면히 흐르는 우리 가락 정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신설했습니다.

군민 여러분!

오늘은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인 祝祭의 한 마당에서 모두가 하나되는 큰북을 두둥둥 울립시다. 그리고 祝福의 讚歌를 부릅시다.

끝으로 이번 제전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KBS 남원방송국, 전북일보사 그리고 제전위원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군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6. 10. 14.

義巖朱論介祭典委員會
委 員 長

金 鎮 泳

기 념 사



장 수 군 수
김 상 두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요가 넘치는 높푸른 가을하늘 아래 우리고장이 낳은 영원한 충절의 여인상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 422주년과 제29회 군민의날을 맞이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2년 간격으로 실시해 오던 주논개 제전 행사를 매년 개최하게 됨으로써 논개님의 얼을 더 높이고 전국적인 문화행사로써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관내외 여러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시어 오늘 군민의 이름으로 장수군민의 장과 감사패 그리고 사과왕으로 선발되어 수상하신 일곱 분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암 주논개님께서서는 400여년전 우리 나라가 왜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국충정의 일념으로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침으로써 조국 수호의 신으로 산화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긍지와 애국정신을 길이 남겨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까지 논개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음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개님에 대한 사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논개사 정립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까지 의암사 성역화 사업에 50여억원을 투자하여 숭고한 님의 애국의 얼과 장수삼절의 유적인 향교와 타루비도 정비하여 님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고장은 옛부터 충의와 예절을 숭상하고 충·효·열의 3강을 실천한 의암 주논개님을 비롯하여 조선 500년 역사의 초석을 다지신 청백리의 표상 방촌 황희정승 등 수많은 애국지사와 선현들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 지방자치시대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진주간과 군산·대구간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내륙 교통 요충지의 입지적 여건과 깨끗한 환경, 산자 수려한 청정자원 등을 접목시켜 조화롭게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고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 살기좋은 고장으로 우뚝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따라 지금 우리 군에서는 세계 제일의 사과 수출단지 육성을 목표로 사과선단 단지와 직영포 58ha를 군유림 등에 조성하고 전국에 두개뿐인 사과대묘 생산단지를 유치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 생산하여 사과 수출단지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으며 장수·장계·천천 우회도로를 비롯한 장수남천로, 장계서동로 지방도 포장 등 크고 작은 지역 개발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군민의 애향화합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장수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기념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10. 14.

장 수 군 수 김 상 두

축 사



전라북도지사
유종근

자랑스러운 장수군민 여러분!

오늘 충의의 표상인 의암 주논개 탄신 422주년을 기리는 제전과 함께 스물아홉번째 장수 군민의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 고장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어느 고장보다 많은 애국지사가 나와 국난을 물리치는데 목숨을 바친 곳이며 그 가운데 의암 주논개는 우국의 일념으로 왜장과 함께 진주 남강에 몸을 던져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친 호국신으로서 진정한 애국의 사표라 하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며 강낭콩보다 더 푸른 그 물결위에 더 붉은 그마음 흘러라」고 논개를 노래한 수주 변영로시인의 예찬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고장은 병화속에서도 왜적조차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는 장수향교를 비롯하여 의암사, 타루비 등 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있으며 호남과 영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러한 장수군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애향심으로 뭉쳐 산간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고냉지 채소를 비롯한 사과, 감자 그리고 축산 등에 남다른 창의력과 정열을 쏟아 소득증대사업에 정진하고 있으며,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랑스러운 장수군민 여러분!

지난날 이 고장의 애국지사와 선조들이 보여준 긍지와 충의정신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 충정이야말로 바로 이 고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논개의 애국충정을 기리며 군민화합의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일찍이 목숨을 바쳐 이땅을 지킨 선열들의 우국정신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보다 잘사는 내고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으며 바로 여러분은 능히 이를 완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장수군민 여러분은 지역간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과 정열로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기념행사가 장수군민의 굳건한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가을의 풍요속에 신명나는 즐거운 마당이 되고 내일의 영광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6. 10. 14.

축 사



국 회 의 원
정 세 균

오늘 뜻깊은 군민 화합의 잔치인 「제29회 장수 군민의 날」과 장수의 얼을 상징하는 「의암 주논개 탄신 422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풍년을 자축하는 성대한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런 장수군민 여러분!

장수는 지조와 얼을 상징하는 훌륭한 고장입니다.

「의암 주논개」로 대표되는 장수의 얼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민족의식이 희박한 오늘의 세태에서, 우리들 모두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군민 여러분!

건국 이래 최대의 풍년이라는 울가울에도 우리 농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농촌이 위기를 맞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위기를 해결할 주체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첫번째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고장 장수는 장안산을 비롯하여 방화동과 덕산계곡 등의 청정 자연환경에, 시설원예나 과실, 화훼 등의 재배, 그리고 축산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장수사과는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로써 호평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작목도 사과와 같은 명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농촌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머지않아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장수도 전국 최고의 고장으로 변화, 발전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수 사람의 긍지와 농민의 끈기로써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살맛나는 장수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 또한 여러분의 억센 손을 힘차게 맞잡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장수군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의기투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김상두 군수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 10. 14.

축 사



장수군 의회 의장
홍 순 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걷이를 마무리하는 계절 앞에서 의암 주논개님 탄신 422주년 기념과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전체 군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높이 기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먼길 마다하지 않고 우리 장수를 찾아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수는 산자수려하고 인심이 순후하여 그동안 수 많은 귀인들이 배출된 유서 깊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주논개님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 군민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대변해 주는 정신적 지주일 뿐만 아니라 만고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논개님의 꽃다운 짧은 생애의 위대한 애국 충절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제전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만 세세년년 우리 군민의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참배객이 매년 늘어나 성황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제전행사가 더 알차고 규모있게 발전되어 오늘과 내일 뿐만아니라 세대를 이어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민족혼의 참모습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우기 지역 정서와 특색이 강조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숭고한 논개님의 정신을 이어 받아 나보다 지역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오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제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장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1996. 10. 14.

장수군의회 의장 **홍 순 목**

의암 주논개 제전위원회 고문 및 위원명단

고 문 : 정세균(국회의원), 정장현(신한국당 무진장지구위원장), 김광수(국회의원),
홍순목(군의회 의장), 한생수(경찰서장), 오윤근(교육장), 이경해(도 의회의원),
김명수(도 의회의원), 서완기(도 교육위원), 이규태(조선일보 전무이사),
최준호(재경향우회장), 이재식(남서울대학교 이사장)

명 예 제 전
위 원 장 : 김상두(군수)

제전위원장 : 김진영(문화원장)

위 원 : 이영기, 장명열, 신영현, 박현규, 서석호, 문창규, 박청경, 김좌형, 오봉수, 황용남,
박만덕, 이득춘, 엄재후, 이재택, 이생주, 정석현, 박찬수, 정석근, 유동승, 이대근,
김기수, 김여선, 양태진, 박성수, 김두봉, 안성호, 박성근, 신현구, 이성주, 김형곤,
김용한, 최영춘, 이명재, 이윤열, 권종소, 장재영, 한순태, 이희석, 김순홍, 유화열,
이인호, 백영기, 양형식, 이강섭, 김정수, 이택열, 진기종, 강충희, 양해도, 황현엽,
전수선, 유인석, 한용수, 장문엽, 최봉철, 마순익, 김홍기, 강태순, 정희택, 박준택,
임채천, 육동수, 이갑동, 송승현, 유재영, 김홍섭, 장창엽, 한규성, 정익수, 차창석,
이승하, 양회영, 권희철, 김창수, 한병태, 박성근, 김재하, 고흥기, 고두영, 노영일,
양기홍, 이병만, 장예현, 송병석, 김용기, 신금암, 최영희, 문희병, 문택현, 이인화,
양우홍, 이동주, 최재근, 김복길, 김국자, 강대현, 임병문, 허원인, 양창식, 유기홍,
김현기, 유기종, 성영열, 최광진, 최성택, 유영철, 최영식, 김광규, 장경호, 김완진,
김종윤, 임재봉, 이광진, 김길래, 강병옥, 송재홍, 이왕주, 손천엽, 정재중, 마옥동,
강도식, 송재득, 범 윤, 이홍길, 윤장철, 김성진, 한 근, 유창열, 박홍민, 양성원,
조운제, 채규석, 전병철, 김진혁, 진춘섭, 김영규, 신원호, 박선근, 한병두, 김연자,
이택영, 육진수, 김상근, 최용성, 김홍곤, 김용운, 한원희, 오용인, 박병석, 이상규,
임성택, 서성기, 홍순태, 김인배, 양병조, 육종윤, 이근식, 이진소, 강종인, 이기환,
박희목, 김진홍, 김종열, 박용덕, 윤정기, 노순예, 최용득, 박동식, 홍성동, 장원선,
윤용섭, 김인곤, 유주상, 장관빈, 김진식, 권희완, 정상윤

의암주논개제



전 행사 발자취



내고장 자랑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전북기념물 제46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보물 272호)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장수삼절(長水三節)

◀ 논개사당(論介祠堂)

- 1846년 장수현감 정주석이 사당 건립
- 1943년 2차 세계대전시 소실
- 1954년 군민성금으로 재건
- 1955년 함태영 전 부통령 현판 휘필
- 1974년 장수읍 두산리 산 3번지 현위치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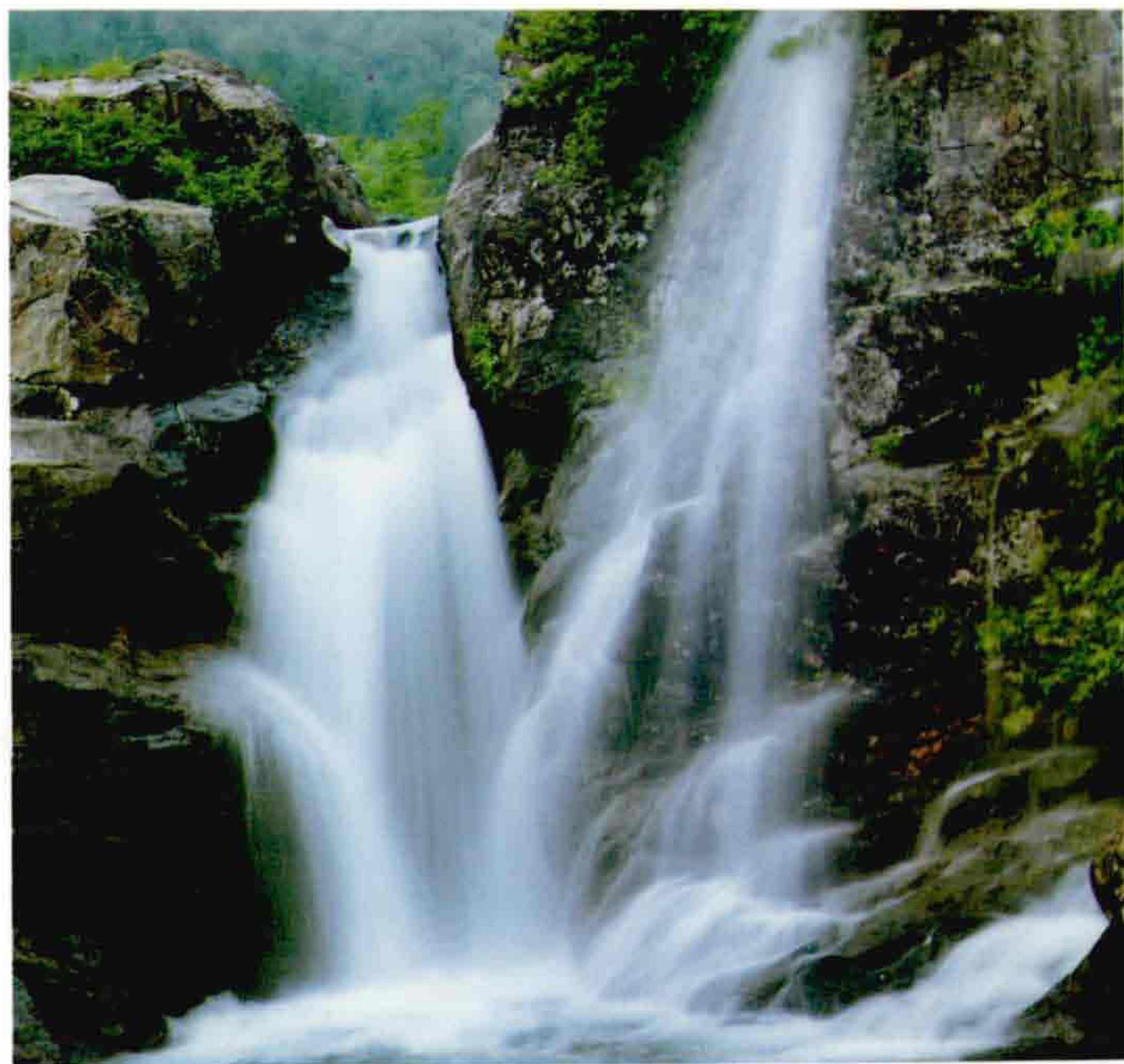
◀ 장수향교(長水鄉校)

- 1407년 조선조 어명으로 창건, 대성전, 부강문은 창건당시 원형이 보존된 팔포형 건물임.
- 정유재란시 왜군이 향교를 불태우려 하자 충복 정경손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 왜장이 이에 감복 침입말라는 글을 정문에 붙여 화를 면함.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건물임.

◀ 타루비각(墮淚碑閣)

- 1678년(조선 숙종4년) 장수현감 조종면이 전주 감영에 가기위해 말을 타고 이곳에 이르렀을 때,
- 숲속에 있던 장끼(똥)가 날자 말이 놀라 뛰어 현감과 말이 함께 하천에 빠져 목숨을 잃음.
- 이에 통인은 다하지 못한 책무를 깨닫고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똥과 말을 그리고, "타루"라 두글자를 쓰고 현감을 따라 순절.
- 이를 기리기 위해 타루비를 세움.

관광명소



• 장안산

조선 8대 종산으로 불리운 장안산(1,237m)은 정상 주능의 갈대밭이 유명하며 1일 등산코스로 각광 받고 있음.

• 덕산계곡

장안산 군립공원으로서 용소와 기암괴석, 단풍 등이 조화를 이뤄 매년 피서객이 몰려오고 있음

• 방화동 휴가촌

국내 최초로 지정된 가족단위 국민관광지로서 자동차 야영장 등 공공시설을 마무리하고 민자 사업을 본격 추진, 급증하는 가족단위 관광에 대비하고 있음.

• 단풍의 절경 지지 계곡

28km의 긴 계곡 주변에는 동화담, 삼거폭포, 장안산, 논개 생가터, 대곡제 등 많은 관광 자원이 널려있어 춘, 하, 추, 동 절경이 펼쳐지며 특히 아름다운 가을단풍은 잘 그려진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함.

• 토옥등 계곡

남 덕유(1,508m) 깊은 계곡의 맑은물, 바위, 원시림과 양악호, 용연정 등 수려한 자원을 고루 갖춘 비지정 관광지, 계곡 및 양악마을을 숙박제공형 관광 민박촌으로 개발중.

• 와룡자연휴양림

성수상 와룡계곡의 자연림내에 야영장, 삼림욕장, 체련시설, 등산로 등이 갖추어져 있어 산행을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자연휴양 적지.

명 산 품

• 장수사과

토양이 기름지고 물빠짐이 좋으며 고랭지의 고온량 지수가 낮은 우리 고장은 천혜의 사과재배 적지, 장수에서 생산한 사과는 타 지역에 비해 향이 좋고 당도가 월등히 높아 전국 명산품으로 자리잡아 성장 작목으로 재배 면적을 늘려가고 있음.



• 오미자

고산 약용식물로 시고, 달며, 짠고, 쓰고, 매워 오미자라 하며 동의보감에 의하면 오미자는 오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갈증과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함.



• 곱돌석기

장수에서만 생산되는 곱돌로 만든 석기 제품은 전통과 역사가 깊고 돌의 질이 좋아 전국에 널리 알려진 특산품으로 여기에서 음식을 지으면 잘 식지 않고 맛 또한 일품.



탄신 422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9회 군민의 날

팔공청년회

회 훈

나 를 위 하 여

우리 를 위 하 여

지역 을 위 하 여

회 장 : 허 원 인

직 전 회 장 : 신 공 식

부 회 장 : 박 종 호

부 회 장 : 이 정 한

사 무 장 : 황 종 호

총무교육부부장 : 차 주 영

홍 보 부 부 장 : 허 윤 종

지역사회부부장 : 이 성 춘

문화체육부부장 : 정 수 영

농협

“농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농협임직원이 힘껏 뛰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박 성 수

장 수 농 협 조 합 장 한 순 태

번 암 농 협 조 합 장 장 창 엽

장 계 농 협 조 합 장 이 택 열

천 천 농 협 조 합 장 한 규 성

탄신 422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9회 군민의 날

시외전화
바로텔

국제전화
001

시외전화 종전대로 지역번호만 누르세요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한국통신장수전화국**

국 장 이 윤 열



유한회사 아산종합건설

ASAN CONSTRUCTION CORPORATION

文化財 事業擔當

理 事 柳 箕 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번지 (성원빌딩 2층)

전화 : (0652) 72-0515 · 78-0515 (대표)

(0652) 72-0516 · 72-2051 · 72-2272

팩스 : (0652) 252-2050

탄신 422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9회 군민의 날

우리고장
전국 뽀뽀

015

의암 주논개 탄신 제422주 제전을 축하합니다.

'96. 10. 1 부터

015 뽀뽀 가입보증금 면제!

이제, 보증금(22,000원) 없이 장치비 4,400원만으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개통 3주년 및 CT-2 (발신휴대전화) 사업권 획득 기념으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상장법인 명의의 경우에만 명제되던 가입보증금을 '96. 10. 1부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가입보증금(22,000원)을 전액 면제하여 드립니다.

구 분	혜 택	구 비 서 류	시 행 일 자	신 청 장 소
신규가입자	가입시 보증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기관장 발행) • 기타 신분 확인 서류 	'96. 10. 1	본사 및 각 대리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사 고객지원실 (0652-782-015 또는 715-114) 및 각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을 사랑합니다 —



전북이동통신

고 은 화 장 품

〈신부화장, 피부관리, 드레스 대여〉
각종 기타류

전 화 : 3 5 1 - 5 2 4 9

호출기 : 012 - 673 - 8652

위 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472-7번지
(터미널 前)

탄신 422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9회 군민의 날

가 나 안 농 장

권 광 열

장수군 장수읍 구락리

사무실 : 3 5 1 - 5 3 5 2

3 5 1 - 8 9 8 9

와 남 골 재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북동

사무실 : 3 5 1 - 5 1 5 7

탄신 422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9회 군민의 날

빠른 창구, 친절한 은행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북 은 행

장 수 지 점

支店長 田 永 善

☎ 597-8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56-10

전 화 : (0656) 351-0777~80



(유) 장 수 개 발

토공·철근 콘크리트공사 전문 건설업체

골재 채취업 등록업체

☎ 597-8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63-3

전 화 : (0656) 351-2473, 5005

팩 스 : (0656) 351-5006

탄신 422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9회 군민의 날



有限會社 錫元土建

常務理事 金 鎮 洙

全北 益山市 仁和洞 2街 90-3 (남부탑볼링장 앞)
電 話 : (0653) 856-3321~3
FAX : (0653) 856-3324
핸드폰: 011-651-0903
呼出機: 012-688-0903

장 계 노 래 방

김 인 배

전 화 : 353-0020

탄신 422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9회 군민의 날

양담배 앓피우는
고장 장수!

한국담배인삼공사

장수영업소

소장 김 주 식

한 일 무 역 (주)

최 명 진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283-64

사무실 : (062) 572-2055~6

자택 : (062) 571-1164

휴대폰 : 011-609-2207



株式會社 東南레이콘



대표이사

유 동 승

내 집 짓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공 장

전북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280

전 화 : (0671) 626-0909

(0656) 353-0115~7

팩 스 : (0656) 353-0118

● 사 무 소

전북 남원시 동충동 336번지

전 화 : (0671) 31-0909

(0656) 626-0909

팩 스 : (0671) 33-9669

